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이해리** · 조한익***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탄력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개관, 정리하여 탄력성 요인을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고 내적 특성 척도로는 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지적 차원은 자기효능감 요인과 문제해결 요인을, 정서적 차원은 감정과 충동 조절 요인, 공감과 수용요인을, 의지적 차원은 낙관주의 요인, 목표와 희망 요인을, 영성적 차원은 의미추구 요인과 종교적 영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외적 보호요인 척도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각 돌봄의 관계와 기대 요인, 의미있는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래차원은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요인과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른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14개의 예비문항 가운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와 청소년들의 인지검사, 척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04개의 문항이 선택, 수정되었고 이어 2차의 예비검사와 문항분석을 통해 97개의 문항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67개의 문항이 16개의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를 가진 요인구조로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전체 문항 신뢰도는 $\alpha=0.940$, 추출된 16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들은 .967 ~ .620 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 간 상관관계도 검토되었다. 최종적으로 4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탄력성 척도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그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탄력성, 개인 내적 특성, 외적 보호요인, 긍정적 적응

* 이 연구는 2005학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I. 문제 제기

심리학 및 교육학 연구가 종래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초점에서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에 대한 초점으로 이동하면서 탄력성(resilience) 관련 연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탄력성은 연구자에 따라 이를 과정 혹은 결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역경 혹은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Rutter, 1990; Masten, 2001; Garmezy, 1996;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등)을 말하며, 청소년들이 생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 기술들과 태도들 그리고 능력들을 밝혀주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탄력성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교육적, 치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정신장애 및 적응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 및 사회 재적응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가능성들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력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아직 그 개념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매우 소수의 연구에 의해서만 그 교육적·임상적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형편이다(장휘숙, 2001;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유성경, 심혜원, 2002; 이윤주, 2003; 박지아, 유성경, 2003; 김택호, 김재환, 2004 등). 특히 탄력성의 개념에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서의 탄력성을 고찰하고 다른 보호과정들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각기 다른 준거에 따라 탄력성의 결과들을 규정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Kinard, 1998;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이러한 개념적 불일치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는 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Sawyer(2003)와 Luthar와 Cicchetti(2001), Caldwell(2000) 등이 지적한 것처럼,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과 이들 개념들을 측정

하고자 하는 탄력성 척도 상의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즉 탄력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탄력성을 성격적 특질로 보는 관점(Block & Kremen, 1996 등)에서는 개인의 탄력성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California Child Q-Sort(CCQ)나 Ego-Resiliency Scale(ER89)를 사용하여 개인의 탄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각각 아동과 청년기 후기 대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인데,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들에서 이들 검사 문항을 연구 대상에 맞추어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검사들은 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과정에 관여하는 보호요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간과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Petersen(1996; 장휘숙, 2001에서 재인용)이 사용한 탄력적 집단 추출방법은 청소년들을 위험수준과 적응수준에 따라 고위험집단(고위험, 저적응 수준)과 유능집단(저위험, 고적응 수준), 탄력적 집단(고위험, 고적응 수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탄력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탄력적 집단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개인차들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개입을 계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이러한 측정의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나 임상적 차원에서 유용하고 발전적인 적용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리고 드물지만 일본에서도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척도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나(Hurtes, 2004; Connor & Davison, 2003; Oshio et al., 2003; Revich & Schatte, 2002; Constantine & Benard, 2001; Neil & Dias, 2001; Block & Kremen, 1996) 아직 널리 인식되거나 주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없다. 2000년에 발간된 APA의 정신의학 척도 안내 책자에도 탄력성 척도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Connor & Davison, 2003).

현존하는 탄력성 척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우선 탄력성 척도들이

탄력성의 개념을 성격적 특질로만 규정하고 측정하거나, 혹은 외적 보호요인과 성격적 탄력성 특질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 채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마다 다른 개념적 접근과 연구결과들을 보이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탄력성 요인에 있어 개인의 특질과 가족 차원의 보호요인에 머무는 측정을 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학교와 지역사회 등의 보호요인이 간과되고 있고 따라서 포괄적인 수준의 보호요인 측정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2001)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한 것 외에는 탄력성 척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탄력성 연구에서는 외국의 척도를 내적 합치도만 확인하고 엄격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제기된다. 내적 합치도 뿐 아니라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더불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공존타당도 등이 검증된, 보다 전문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덧붙여 이윤주(2004)가 지적했듯이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문화적 괴리를 극복해야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탄력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임상적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적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도 활용하기 쉬운 탄력성 척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심리측정적으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여 탄력성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과정들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적·치료적 개입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개인의 탄력성이라는 긍정적·적응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을 이해하고 측정, 진단하며, 개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의 출발로서 척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탄력성을 개인적 특성으로만 혹은 외적 보호요인으로만 측정하는 데서 벗어나서 개인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함께 측정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적

보호요인으로서 자주 연구되어온 가정적 요인 외에 학교와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총체적 관점을 지향하였다. 개인 내적 특성에 있어서도 종래의 인지적 특성이나 정서적 특성 외에도 영적 차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삶에 중요하면서도 간과되어온 요소로서 영성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전인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한 개인의 탄력성 증대와 치료적 개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영성의 의미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Walsh, 1999; Richards, Bergin, 1997; Benson, 1998; Bogenschneider, 1996; Westgate et al., 1996; Werner, 1989; 최해림, 2001; 박지아, 유성경, 2003;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유성경 외, 2004; 이해리, 2004).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1은 청소년 탄력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위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고 문항을 개발하며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확인하고 예비검사를 실시, 문항분석을 시행하고 예비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연구(연구 1)이다. 연구 2는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요인별로 최적의 문항들을 선택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여 문항-전체 및 요인별 내적 일치도로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1. 청소년 탄력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1. 탄력성 개념 정의

탄력성(resilience 또는 resiliency)¹⁾이라는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

1) 정신분석적 조망에서 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한 Block 등(1996)은 탄력성을 resiliency라고 불렀지만 Luthar 등(2000)은 Masten(1994)의 주장

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이십여 년 간 발간된 탄력성 관련 문헌들을 개 관해보면 탄력성을 긍정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보는 관점과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보는 관점, 또 개인의 성격특질로서의 탄력성을 보는 관점과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으로서 탄력성을 보는 관점 등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성에 관한 일치된 정의는 어렵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탄력성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위험요인들을 중재하여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Olsson et al., 2003; Revich & Schatte, 2002; Constantine & Benard, 200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Rutter, 1999 등). 그리고 정의에 따라 탄력성의 구성요인이 되는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 및 그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모델

이론 주도적 척도의 개발을 위하여서는 구성개념을 명확히 설명, 정의하고, 그 구성개념에 대한 일관된 조작적 정의와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문항을 제작, 선택하게 된다(한국심리학회, 1998).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탄력성 개념과 요인들을 검토하여 개인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요인들로 크게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개인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다시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묶이고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관련이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려고 노력하였다(표 1 및 표 2).

을 따라 개인적 특질을 의미하는 resiliency가 아닌 좀 더 과정적인 개념으로서 resilience를 쓰도록 강조하고 있다.

〈표 1〉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탄력성 요인들 - 개인 내적 특성들

구 분	개인 내적 특성	연구자
기 질	▪ 긍정적 기질 ▪ 외향적 기질 ▪ 신경생물학적 강건함	Smith(1999), Allen(1998), Werner 1995), Brooks(1994), Kim-Cohen(2004) Garmezy(1991), Rutter(1987)
인지적 능력	▪ 높은 지능 ▪ 학업성취 ▪ 계획 및 의사결정 ▪ 인과분석 ▪ 문제해결	Masten 등(1999) Werner(1995) Eccles(1997), Maggs Frome, Eccles and Baarber(1997), Wolff(1995), Brooks(1994), Rutter(1987) Revich and Schatté(2002) Constantine and Benard(2001) Dumont and Provost(1999) Herman-Stahl and Petersen(1996)
의사소통 기술	▪ 협동과 의사소통 ▪ 언어적 숙련 ▪ 독서기술	Constantine and Benard(2001) Werner(1995)
성격적 특성	▪ 자기효능감 ▪ 자존감 ▪ 충동통제, 정서조절 ▪ 부정 감정에 대한 인내 ▪ 자기개념 ▪ 자기의식 ▪ 내적통제 소재	Revich and Schatté(2002), Allen(1998), Sarah(2003) Blum(1998) Revich and Schatté(2002), Shiner(2002), Smith(1999), Robins 등(1996), Revich and Schatté(2002), Constantine and Benard(2001) Dyer and McGuiness(1996) Constantine and Benard (2001) Werner (1995)
	▪ 유머감각 ▪ 낙관주의, 희망 ▪ 스트레스 대응전략 ▪ 지속적인 가치관 ▪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조망 ▪ 융통성 ▪ 강인함, 확신, 단호함 ▪ 자기강화, 긍정적 정서 ▪ 목표와 열망	Brooks (1994) Oshio 등(2003), Revich and Schatté(2002), Wolff (1995), Herman-Stahl and Petersen(1996), 김택호(2004), Snyder(2002) Luthar(1991, 1993) Rutter(1985, 1987) Bonanno(2004) Constantine and Benard(2001)

구 분	개인 내적 특성	연구자
사회성 대인관계	- 타인에 대한 민감성 - 친사회적 태도 - 타인에 대한 애착형성	Luthar(1991, 1993) Werner(1995) Dyer and McGuiness(1996), Masten 등(1998), 유성경 등(2004), 박지아 등(2003)
	공감과 수용	Revich and Schatté(2002) Constantine and Benard(2001) Block and Kremen(1996)
영성	- 영적 영향력 -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가치 - 초월적 신념과 경험 - 공동체 및 신과의 관계 - 실존적 영성 - 영적 안녕, 종교적 안녕 - 의미추구 - 범죄 억제요인으로서의 종교성 - 영적 경험, 도덕적 방향성 등 -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정신건강의 중재변인으로서 종교성 - 약물중독으로부터의 회복과 영성 - 장애인의 적응과 영성	Connor and Davison(2003) Westgate et al.(1996), 유성경 등(2004) 박지아 등(2003) 김택호(2004), Nolen-Hoeksema and Davis(2002), Block and Kremen(1996), Baumeister and Vohs(2002) Chu(2003) Smith(2003) Fabricatore 등(2004), Perez(2002), Handal 등(1997) Sherman 등(2002) Poston 등(2004), 장순옥(2001)

〈표 2〉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탄력성 요인들 - 외적 보호요인들

구 분	외적 보호요인	연구자
가정	지지적 관계와 참여	Smith(1999), Eccles(1997), Kim-Cohen(2004), O'Donnel 등 (2002), Masten 등(1999), Herman-Stahl & Petersen(1996), Maggs et al. (1997), Egeland & Erickson(1987), Wolff(1995), 이은미(2001) Rutter(1987) Constantine & Benard(2001)
	믿음과 기대	Werner(1995), Constantine & Benard(2001) Rutter(1987) Egeland, Carlson & Sroufe(1993) Constantine & Benard(2001)

구 분		외적 보호요인	연 구 자
사회· 환경	사회 경제적 지위	물질적 자원	Maggs et al.(1997), Wolff(1995), Allen(1998)
	학 교 경험과 또래관계	교사의 관심과 기대 긍정적인 교사의 영향 학교에서의 성공경험 (학업적, 비학업적) 학교 활동의 의미 있는 참여 또래의 관심과 기대 지지적인 또래	Constantine & Benard(2001) Rutter(1987) O'Donnel 등(2002) Constantine & Benard(2001) Criss(2002), Herman-Stahl & Petersen(1996) Werner(1995), Dumont & Provost(1999), Criss 등(2002)
	지지적 지역사회	개인의 스트레스를 인정 비차별적임 자원의 제공 사회적 가치에 대한 믿음 지역사회 주민의 돌봄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신앙공동체의 관심과 지지 신앙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Smith(1999) Werner(1995) Wolff(1995) Constantine & Benard(2001) Dumont & Provost(1999) King & Furrow(2004)

탄력성의 구성 요인들과 개념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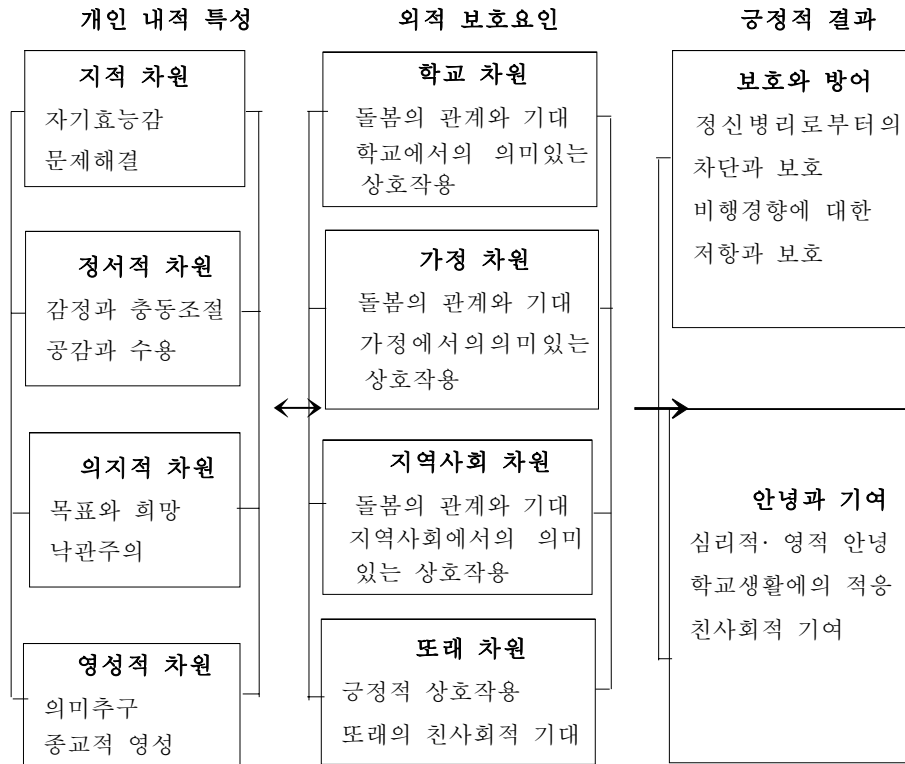
표 1, 2에서와 같이 범주화된 보호요인들 가운데에서 탄력성 요인으로 자주 연구되고 또 비교적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인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성의 하위 차원들을 구성하였다.

먼저 탄력성 척도를 내적 특성 척도와 외적 보호요인 척도로 나누었다. 내적 특성 척도는 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외적 보호요인 척도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또래차원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내적 특성 차원들은 다시

각각 2개씩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적 차원은 자기효능감 요인과 문제해결 요인을, 정서적 차원은 감정과 충동 조절 요인, 공감과 수용요인을, 의지적 차원은 낙관주의 요인, 목표와 희망 요인을, 영성적 차원은 의미추구 요인과 종교적 영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외적 보호요인 척도에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은 각각 돌봄의 관계와 기대 요인, 의미있는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래차원은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요인과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역경에도 긍정적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과 이론적 모델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개인 내적 특성이란, 개인의 내적, 성격적 특성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말한다.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성적 차원의 구분은 처음부터 개인 내적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명명한 것은 아니었으나, 연구자들에 의하여 많이 탐색되고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요인들을 선별한 결과, 결정된 8개 요인들을 좀 더 간단하면서도 의미있는 조합으로 묶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분류개념들이다. 영성적 차원에 해당되는 의미추구 요인과 종교적 영성 요인은 최근에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탐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탐색코자 포함시켰다.

외적 보호요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개인의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켜주는(그래서 더욱 유연하게 해주는) 보호기제의 기능을 하는 요인을 말한다. 개인의 적응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 수준에서의 자원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개입 역시 개인의 내적 자원과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탄력성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되어야



〔그림 1〕 청소년 탄력성의 이론적 모델

한다고 볼 때(Olsson 등, 2003), 청소년들의 외적 보호요인으로는 학교와 가족, 또래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포괄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요인은 근래에 보호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요인이다.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청소년 개인이 외적 보호요인(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가리킨다. 즉 네 가지 수준의 외적 보호요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의미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로써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그리고 ‘돌봄의 관계와 기대’와 ‘의미있는 상호작용’ 간의 차이는, 전자는 주로 외적 보호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이 ‘받게 되는’ 관심과 기대와 돌

분을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청소년이 외적 보호요인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환경적 보호요인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더 탄력적이라는 증거들과 역으로 그러한 상호작용이 결여된 청소년들이 더 취약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주로 개인의 내적 특성들과 환경적인 보호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탄력성의 형성과 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휘숙, 2001; Olsson 등, 2003). 탄력성이란 결국 이러한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요인들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특징들이 결합되어 개인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특성이라고 하겠다.

개인 내적 요인들에 대한 기술

(1)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은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감각이다.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다.

(2)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문제해결 능력은 인지적,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과론적으로 그리고 융통성 있게 사고하고, 대안들을 시도해보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 지지와 외적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3) 감정과 충동조절(emotional regulation/impulse control)

감정 및 충동조절은 심리적 압박 하에서도 평온을 지키거나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곧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탄력적인 사람들은 적절한 정서표현과 통제력을 통해 자신의 정서나 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4) 공감과 수용(empathy and acceptance)

공감과 수용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표출된 상대방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지각과 이해, 포용의 과정을 포함한다. 탄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깊이 이해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기보다 수용하며 도와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낙관주의(optimism)

낙관주의는 ‘세상과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세계관 또는 인생관’을 의미한다. 상황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할 거라고 믿으며,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의지를 나타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밝은 면을 보며 불가피하게 부딪치는 역경에 대해서 자신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6) 목표와 희망(goal and hope)

목표는 도달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대상을 말하며, 희망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결과에 대해 밝은 전망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인들은 목표를 지향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강한 성취동기와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멋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등을 포함한다.

(7) 의미추구(meaningfulness)

의미추구는 개인적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기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현재 경험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과정이다. 탄력적인 사람은 따라서 매일의 삶에서 의미가 있고 흥미로우며 자기만족감을 갖고, 역경 하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초월적 조망으로 고통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며 극복해나간다.

(8) 종교적 영성(spirituality)

종교적 영성은 초월적 절대자로서 신이 살아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본

다는 믿음을 지닌 것을 말한다. 절대자와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 안녕과 삶의 지침을 발견하고, 역경에서도 영적 관계를 통해서, 혹은 기도 등 자신이 가진 영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 역경을 재해석하고 이겨낸다. 이 요인은 종교기관에 속해있든지 속해 있지 않든지 간에, 한 개인의 절대자와의 관계와 이에서 파생하는 영적 안녕과 가치와 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외적 보호요인들 및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1) 학교 차원(school connection)

① 돌봄의 관계와 기대

우리의 청소년이 하루의 1/3 혹은 1/2 이상을 보내게 되는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환경이다.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학교는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적 훈련과 인격적 성장을 위한 안정된 장소이다. 학교에서의 교사의 관심과 지지, 격려와 기대 등은 위기와 역경에 처한 청소년에게 학업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좋은 보호요인이 된다.

② 의미있는 상호작용

학교라는 외적 보호요인에 대하여 청소년 자신이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지 하는 것으로, 수업이나 학급회의 등의 학교활동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을 하며, 학급과 학교 활동에 흥미를 갖고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업적이든 아니든, 학교에서의 여러 활동들에서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정 차원(family connection)

① 돌봄의 관계와 기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보호요인 혹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 부모의 온정, 격려, 지원

과 가정 내 응집과 돌봄,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부 간 화목 등의 지지적 관계와, 자녀에 대한 믿음과 높은 기대,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재능과 취미를 인정해주는 태도들은 청소년들에게 빈곤이나 장애, 실패 등의 위험요인이 주는 효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② 의미있는 상호작용

가족 간의 대화와 가족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포함한 가족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위험요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적 힘이 되어준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가족 내의 가치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환경을 숙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3) 지역사회 차원(community connection)

① 돌봄의 관계와 기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과 안녕에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사회적 환경이 되고 있다. 청소년 복지관 등의 비처벌적이며 지원적인 사회구조와, 이웃과 멘토(mentor), 교회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지지적인 돌봄과 기대는 빈곤과 결손가정, 반사회적 비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버티어주고 저항하게 해주는, 대리 보호자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② 의미있는 상호작용

가정과 학교 외의 청소년 단체나 지지적인 지역사회에의 소속과 사회활동에의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이타행동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며, 우울과 반복된 스트레스 경험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또래 차원(pro-social peers)

①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또래와의 관계가 정체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의 규범과 기대에 잘 부응하는 친사회적인 또래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여러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될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유연하게 하고 나아가 성숙한 사회인으로 준비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반사회적 또래집단에서의 동일시는 청소년기 발달과제 성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약물, 일탈된 성행동 등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이후 발달과정에서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② 긍정적 상호작용

건전한 또래집단에서의 수용과 그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정체감을 형성을 돕고 정보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준다. 연구들에 의하면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 엄한 훈육과 같은 가정 역경과 실패경험이 있을 때, 또래의 관심과 지지, 수용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기의 외로움과 불안정감 및 위험을 완화해주는 중재변인의 역할을 한다.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술

탄력성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들로는 다양한 내적·외적 적응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체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학업이나 사회적 성취를 보이는 것, 유능감과 같은 긍정적 결과와 함께, 정신병리나 비행, 범죄행동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이 없는 것 등도 제시되어 왔다.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측정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탄력성 개념의 차이뿐 아니라 긍정적 결과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요구나 기대가 다르고 또 연령층에 따라 결과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Luthar, Cicchetti, Becker, 2000).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소극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와 방어의 차원과, 적극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안녕과 기여의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보호와 방어 차원에서는 정신병리로부터의 차단과 보호, 비행경향에 대한 저항이 포함되고, 안녕과 기여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영적 안녕과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적응 및 친사회적 기여가 포함되었다.

3. 예비척도 개발

1) 예비문항 개발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예비문항들은 이론적 모델에 속한 하위 요인들의 개념적 정의를 잘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외의 탄력성 척도 문항들과, 탄력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연구문헌들에서 보고된 행동들을 나타내는 표현들 및 정보들을 참조하여 문항 구성과 수정을 반복하였다. 문항의 수는 요인 수와 검사 시간을 고려하여 약 5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약 2배수인 114개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척도양식(scale format)은 모든 문항들이 동일한 정도로 구성개념을 반영한다고 간주하여 균등문항가중 척도로 하였다.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 간에도 중요도를 동일하게 가정하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든 문항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1점)를 부여하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게 된다(한국심리학회, 1998). 반응 양식(response scale)에 있어서는 문항의 성향과 응답자 성향 그리고 분석계획 등을 고려하여 반응범주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데(한국심리학회, 1998), 응답의 중앙 집중현상을 피하고 좀 더 정확한 자기 생각이 반영되도록 Likert 6점 척도로 하였다. 무성의한 응답으로 인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부적 내용의 진술문들(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을 20개 포함하였으며 이들은 역으로 채점하도록 되었다.

2) 예비 척도에 대한 내용 및 안면 타당도 검토

내용타당도는 탄력성 예비척도 내용과 측정 목적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 전문가에게 청소년 탄력성에 관련된 개념정의와 이론적 모델 등을 예비척도 문항과 함께 제시하고 예비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과, 실제 연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집단에게 예비척도 문항들에 대한 두 차례의 인지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거쳤다.

(1)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

청소년 탄력성에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연구자 2인을 포함한 상담학 전공 박사 및 교수 4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 등 모두 5명의 전문가에게 본 척도의 이론적 모델과 탄력성 구성개념 및 하위요인들의 개념적 정의와 예비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에게 예비문항들이 뜻하는 바가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되는지와 문장의 어색함, 애매모호함이나 혼동, 문법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안적 문항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각 문항들이 척도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각 문항들이 분류된 하위 요인들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하였다. 덧붙여 이론 구성이나 문항 선정에서 누락된 내용도 지적하게 하였다. 평가자들의 판단과 평가는 주로 상세한 지적과 설명이 포함된 질적 평가들이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한 개 요인 명칭의 변화(열망-> 희망), 1문항 추가(대리양육자 문항), 11문항 제거(의미 모호나 중복), 15문항 수정(척도 문항의 기술 방식과 반응양식이 잘 부합되지 않는 문항들)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모두 104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2) 청소년 집단에 대한 2차의 인지검사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사항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탄력성 척도의 예비문항들에 대한 인지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일종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문항 개발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보았다 하더라도 이론과 실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지검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정확히 질문을 인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차이다. 예비조사보다는 적은 소수의 응답자에게 문항의 내용을 다양하게 질문하고 또 응답의 과정을 인터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인지검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문항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려는 것이다(박도순, 2004).

먼저 5명의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 대 일로 1차 인지검사를 시행하여 104개의 각 문항들에 대하여 문항내용을 통해 연구자가 의도했던 바대로 문항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하였는지(“이 문항이 무엇에 대해 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지(“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답했는가?”), 또 응답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지(“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응답하는가?”, “다른 문항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응답한 것인가?”) 등을 탐색하였다.

2차 인지검사 역시 실제 목표 집단인 학생들의 입장과 그 수준에서 문항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문항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충청권의 도시 C시의 남녀 공학 중학교의 1학년 한 학급(남 19, 여 15, 전체 34)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검토와 1차 인지검사를 거친 104개의 예비문항을 배부하고 각 문항의 뜻과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 이해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4점 척도로 문항의 명료성과 이해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선정한 것은 문항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면 중고등학생 중에서 중 1학생들에게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인지검사에서 평균 3.0점(‘분명하다’) 미만의 문항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검사 결과, 104개의 문항 모두가 평균이 3.41 ~ 4.0 으로 그 의미가 명료하게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단계에서는 문항의 수를 줄일 수 없었다.

인지검사 결과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통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낙담’을 ‘실망’으로 바꾸고 문장을 좀 더 평이하게 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3) 척도 개발 및 통계 전문가의 검토

척도개발 및 통계 전공 교수에게 예비문항들과 반응 선택지, 지시문 및 인구학적 질문지를 포함한 예비척도를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대리양육자를 질문하는 문항을 포함한 몇 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수정된 104문항과 인구학적 질문지 및 지시문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완성하였다. 전체 문항 중 역채점 되는 balancing item은 15개였다.

3) 예비검사

예비검사의 목적은 본 검사 전에 자료 수집의 체제와 실제 상황에서 척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점검하여 최종 척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박도순, 2004). 본 연구에서는 2차에 걸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1) 1차 예비검사

1차 예비검사에서는 104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한 반응분포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측정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녀 공학인 중학교의 2학년 한 학급(남 19, 여 18, 전체 37)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예비검사에서, 예비 탄력성 척도 104문항에 대하여 Likert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4문항의 평균은 2.47 ~ 5.71 사이에 분포되었고 표준편차는 0.46 ~ 2.16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2.0이하의 문항은 없었으며 평균이 5.0이상이거나 표준편차가 1.0 이하의 문항이 10 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예비검사의 조사대상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2차 예비검사의 문항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문항들을 변별력이 없는 문항으로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한편 통계전문가가 지적한대로 대리양육자 질문과 관련된 23번 문항은 응답자가 6명에 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문항을 제외한 문항-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3이었다.

(2) 2차 예비검사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을 선별, 탄력성 척도의 측정도구로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을 담당한 교사들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와 목적, 실시 방법들을 표준화된 구두 지시와 ‘협조 안내문’을 사용하여 주지시키고, 실시토록 하였다.

① 연구 대상

충청권의 중소 도시인 C시와 A시에서 남자 중학교, 여자중학교, 남자 인문 고등학교, 여자 인문 고등학교, 남녀 공학의 실업고등학교 각 1 개교씩 총 5개 학교에서 3학급씩 15개 학급, 5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대상자의 학교별·학년별·성별 분포는 <표3>과 같다. 응답자 중에서 인구학적 정보가 결여되었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5개 이상이거나, 질문지의 한 쪽 이상에서 편중된 응답 현상을 보이는 사례를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하여 모두 7사례를 제거하여 도합 533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3〉 예비검사 대상자의 학교별·학년별·성별 분포

	학년	성별		총합
		남	여	
중 학교	2	71	33	104
		(33.49)	(15.57)	(49.06)
	3	35	73	108
		(16.51)	(34.43)	(50.94)
총 합		106	106	212
		(50.00)	(50.00)	(100.00)
고 등 학 교	1	147	137	284
		(46.82)	(43.63)	(90.45)
	2	22	8	30
		(7.01)	(2.55)	(9.55)
총 합		169	145	314
		(53.82)	(46.18)	(100.00)
결측치				7
합계				533

② 자료 분석 결과

문항 분석

예비검사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12.0을 사용하였다. 문항분석은 개별 문항들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별력이 낮은 문항들 및 신뢰도 계수가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2.0 이하의 문항은 없었고 평균 5.0이상의 문항이 5개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1차 예비검사에서 변별력이 부족한 문항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항목록에서 제거하였다.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반응을 하여 표준편차가 1.0이하인 2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도 분석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혹은 동질성의 정도를 신뢰도로 추정하기 위해 문항 공변량에 기초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문항별 신뢰도 계수는 최고 .952 ~ 최저 .95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전체 척도 간의 상관이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문항은 대리 양육자를 묻는 23번 문항(-0.15) 한 개였으며, 문항-전체 척도 신뢰도 계수는 $\alpha = .940$ 으로 나타났다. 문항분석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고려, 7문항을 제외시킨 후의 문항-전체 척도 신뢰도는 $\alpha = .951$ 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아직도 예비척도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적절한 반응분포를 보이고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예비검사 결과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는 것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탐색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함과 동시에 탄력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2.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연구 대상

탄력성 척도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은 2차 예비검사 대상인 중·고등학생 533명의 자료에 대하여 시행되었다(표 3).

2. 방법 및 절차

이 연구가 이론적 모델에서부터 출발한 이론주도적 연구이므로 측정 변수(문항)의 수를 줄이는 자료 축소와 함께 요인 구조 확인 등이 목적이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교회전(Varimax 회전) 뿐 아니라 사각회전인 Promax 회전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요인 수는 요인 16개가 추출되도록 NFACTORS = 16으로 지정해주었다.

분석결과 16개 요인들 각각의 고유치와 설명력을 산출하였다. 또 분석결과 이들 16개 요인별로 묶인 67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의 행렬로 이루어진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67개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와 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평정지수로 참고하였다. 탄력성 척도의 16개 하위 요인들 간의 독립성 여부와 상호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요인 간 상호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16개 요인별로 묶인 67개 문항들 가운데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3개씩의 문항들을 선택하여 최종 48문항을 결정하였다.

3. 결과

직교회전과 사각회전의 결과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요인들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인 Promax 회전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보고자하는 요인이 16개이므로 1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설명해주는 변량은 전체의 68.4%로 나타났으며, 16개 요인의 고유값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16개 요인에 대한 고유값과 설명력

요인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1	14.269	7.997	0.213	0.213
2	6.272	2.401	0.094	0.307
3	3.871	0.955	0.058	0.364
4	2.916	0.406	0.044	0.408
5	2.510	0.288	0.038	0.445
6	2.222	0.264	0.033	0.479
7	1.958	0.216	0.029	0.508
8	1.742	0.124	0.026	0.534
9	1.617	0.154	0.024	0.558
10	1.463	0.046	0.022	0.580
11	1.417	0.127	0.021	0.601
12	1.290	0.038	0.019	0.620
13	1.253	0.100	0.019	0.639
14	1.153	0.184	0.017	0.656
15	0.969	0.052	0.015	0.671
16	0.917	0.031	0.014	0.684

요인분석 결과 67개의 문항이 16개 요인에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종교적 영성’ 요인으로서 절대자의 존재와 그의 사랑과 돌봄

에의 신뢰, 그러한 신뢰관계 속에서의 삶의 목적과 가치, 안녕을 발견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8개의 문항이 0.938 ~ 0.875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 변량의 21.3%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2는 ‘학교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로서 학교 교사의 관심과 지지, 기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개 문항이 0.836 ~ 0.499의 요인부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9.4%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낙관주의’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역경에 처해서도 자신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의지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를 반영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6개의 문항이 0.825 ~ 0.531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5.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요인 4는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대’로 부모의 관심과 온정어린 경청, 친밀한 관계 등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문항이 0.825 ~ 0.629의 높은 요인부하를 보이며 전체 변량의 4.4%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5는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으로 학교수업이나 학급회의 등의 활동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을 하며, 학교 활동에 흥미를 갖고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업적이든 비학업적이든 학교에서의 여러 활동들에서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5개의 문항이 0.806 ~ 0.585의 요인부하를 나타내며 전체 변량의 3.8%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6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로 가족과 학교 선생님 외에, 비처벌적이며 지원적인 교회나 복지관 등의 교사나 멘토(mentor)등을 포함한 지역의 지지적인 관심과 도움을 반영하고 있다. 4개 문항이 0.933 ~ 0.841의 높은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으며 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요인 7은 ‘공감과 수용’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반영한다. 5개의 문항이 0.831 ~ 0.427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으며 2.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요인 8은 ‘의미추구’로서 개인적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기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경험들을 해석, 판단하고 그 경험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문항이 0.928 ~ 0.578의 높은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으며 2.6%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요인 9는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로서 가정과 학교의 규범과 기대에 잘 부응하는 친사회적인 또래들과의 관계와 기대를 나타내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3개의 문항이 0.875 ~ 0.715의 요인부하를 보이며 2.4%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요인 10은 '목표와 희망'으로서 3개 문항이 0.833 ~ 0.587의 요인부하를 보이며 2.2%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강한 성취동기와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되어 있다. 요인 11은 '감정 및 충동조절'로서 심리적 압박 하에서도 평온을 지키거나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곧 회복하며 적절한 정서표현과 통제력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문항이 0.775 ~ 0.446의 요인부하를 보이며 2.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요인 12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서 3개 문항이 0.710 ~ 0.533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다. 주로 또래들의 온정적인 관심과 지지, 상호협조와 공동작업을 즐기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인 13은 '문제해결능력'으로서 인지적,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과론적으로 그리고 융통성 있게 사고하고, 대안들을 시도해보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 지지와 외적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3개의 문항이 0.744 ~ 0.666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다. 요인 14는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으로서 3개 문항이 0.770 ~ 0.599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에서의 자발적 활동이나 자원봉사, 교육 등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 15는 '자기 효능감'으로서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다. 2개의 문항이 0.461, 0.450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다. 요인 16은 '가정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으로서 2개 문항이 0.734, 0.357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다.

가정 안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견의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3번 문항은 요인 2(학교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와 요인 15(자기 효능감)의 두 요인에 각각 .499와 .550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는데, 문항의 특성상 요인 2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27번 문항도 요인 4(가정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와 요인 16(가정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에 각각 .324, .357의 요인부하를 보이고 있는데 문항 특성상 요인 16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탄력성 척도의 예비문항들 중 67개의 문항들이 탄력성 척도의 내적 특성 척도의 8개 요인들과 외적 보호요인 척도의 8개 요인에 의미있는 요인부하를 보이면서 안정된 요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반영해주는 의미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문항 및 요인별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로 알아본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0.940$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추출된 16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들은 .967 ~ .620 사이에 분포하여, 요인 내 문항들의 동질성을 확인해주었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요인들의 특성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듯이, 표 5에서 나타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몇몇 요인들은 서로 약간의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있는 상관 수준을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으나 .30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상관의 정도가 미미한 요인 1 (종교적 영성) 등의 몇 요인들을 제외하고는 여러 요인들에서 어느 정도 상호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지만,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대 수준, 낙관주의 등의 요인들은 다른 여러 요인들과 상관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그 관계를 탐색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표 5〉 요인 간의 상관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1	1.000							
요인2	0.156	1.000						
요인3	0.163	0.253	1.000					
요인4	0.175	0.327	0.396	1.000				
요인5	0.155	0.422	0.275	0.357	1.000			
요인6	0.249	0.357	0.286	0.237	0.278	1.000		
요인7	0.188	0.201	0.315	0.295	0.238	0.135	1.000	
요인8	0.214	0.226	0.445	0.349	0.262	0.210	0.352	1.000
요인9	0.066	0.191	0.272	0.322	0.159	0.100	0.294	0.230
요인10	0.141	0.183	0.382	0.231	0.283	0.212	0.181	0.319
요인11	0.016	0.035	0.154	0.007	-0.001	0.100	0.124	0.101
요인12	0.079	0.200	0.261	0.281	0.163	0.199	0.280	0.275
요인13	0.043	0.046	0.160	0.108	0.195	0.070	0.200	0.181
요인14	0.238	0.110	0.055	0.056	0.167	0.210	0.118	0.087
요인15	0.043	0.111	0.168	0.173	0.260	0.065	0.170	0.184
요인16	-0.012	0.081	0.168	0.098	0.005	0.093	0.084	0.066
요인	영성	(학교) 돌봄· 기대	낙관주의	(가정) 돌봄· 기대	(학교) 상호작용	(지역) 돌봄· 기대	공감 수용	의미 추구
	요인9	요인10	요인11	요인12	요인13	요인14	요인15	요인16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1.000							
요인10	0.225	1.000						
요인11	0.092	0.001	1.000					
요인12	0.162	0.100	-0.012	1.000				
요인13	0.091	0.133	0.196	0.048	1.000			
요인14	0.086	0.016	0.066	0.095	0.097	1.000		
요인15	0.033	0.143	-0.026	0.181	0.158	0.047	1.000	
요인16	0.176	0.104	-0.064	0.158	0.044	0.015	0.040	1.000
요인	(또래) 친사회 기대	목표 희망	감정충동 조절	(또래) 상호작용	문제해결	(지역) 상호작용	자기 효능감	(가정) 상호작용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최종 문항 선정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최종 문항은 각 요인별로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3개씩의 문항을 순서대로 선택하였다. 요인 15와 요인 16은 각각 2개씩의 문항이 요인에 묶였는데, 요인별 문항 수를 통일하기 위하여 한 개씩의 문항을 보충하였다. 요인 15(자기효능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로서 김아영(1996)이 사용한 자기 효능감 척도에서 인용하였으며 요인 16(가정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어떤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다.”로서 심응철(1992)의 심리적 성장환경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인용하였다. 이들 척도들은 각 논문에서 .80이상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두 4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역채점 문항은 2개뿐이었다. 역채점 문항이 많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연구자가 임의로 문항을 선택하는 것을 경계하고 통계분석 결과에 따라 문항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표 6에 최종 선택된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문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표 6〉 청소년 탄력성 척도 최종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1.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2.	집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은 무시되는 편이다.(R)
3.	내 친구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지 않는다.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5.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무슨 일을 잘 해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7.	가족, 학교 선생님 외에 내가 신뢰할만한 어른이 계신 것 같다.
8.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규칙을 지킨다.
9.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아픔을 느낀다.
10.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결국엔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1.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12.	가족, 학교 선생님 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계신 것 같다.
13.	내 친구들은 학교생활을 잘 한다.
14.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16. 나는 학급 활동이나 규칙들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한다.
17. 가족, 학교 선생님 외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어른이 계신 것 같다.
18.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19.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20.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믿는다.
21. 학급에서 임원(반장, 부반장, 부장 등)을 맡아 일한다.
22. 나는 자선기관이나 교회, 혹은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나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3.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24.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5. 신앙 덕분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26. 우리 학급이나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다.
27. Y M C A,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 인권감시단 등의 지역 사회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28.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생각해본다.
29.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R)
30. 종교생활은 내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31.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32. 복지관, 청소년 상담원, 쉼터, 수련원, 교회, 절 등의 기관에서 상담이 나 교육 프로그램, 봉사, 주일학교 등에 참여한다.
33.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생각해본다.
3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35.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내 말을 들어 준다.
36.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37.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한다.
38.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39.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우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할 때 알아차린다.
40. 나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4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42.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43. 나는 집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4.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45.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46. 세운 목표나 계획들을 실천하는 편이다.
47. 어떤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다.
48.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R)은 역채점 문항.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탄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을 위하여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개관, 정리하여 내적 특성 척도와 외적 보호요인 척도로 구분하고 내적 특성 척도로는 지적 차원, 정서적 차

원, 의지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지적 차원은 자기효능감 요인과 문제해결 요인을, 정서적 차원은 감정과 충동 조절 요인, 공감과 수용요인을, 의지적 차원은 낙관주의 요인, 목표와 희망 요인을, 영성적 차원은 의미추구 요인과 종교적 영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외적 보호요인 척도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각 돌봄의 관계와 기대 요인, 의미있는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래차원은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요인과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2개 하위척도, 4개 하위차원 및 8개 하위요인 모델에 따른 척도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문항을 선정하였다. 114개의 예비문항 가운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와 청소년들의 인지검사, 척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04개의 문항이 선택, 수정되었고 이어 2차의 예비검사와 문항분석을 통해 97개의 문항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67개의 문항이 16개의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를 가진 요인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척도 전체와 요인별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며, 요인 간 상관관계도 검토되었다. 최종적으로 4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탄력성 척도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그 의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탄력성 관련 연구들에서 자주 거론된 요인들 외에 본 연

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된 것으로는 영성적 차원의 종교적 영성 요인과 의미추구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제 1요인과 8요인으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있어 심리성적, 심리 사회적 존재일 뿐 아니라 심리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영성적 차원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미 DSM-IV에서 종교적 또는 영적 문제를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시사한 이래(APA, 1994, P.879), 영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담, 교육, 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 등의 여러 전문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Richards와 Bergin(1997, APA)도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완전한 진단적 기술을 얻기 위해서, 내담자의 세계관과 종교적 지향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내담자의 공동체가 도움이 되는 차원인지를 발견하고, 영적 중재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영적 측정을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를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최근에 의학·심리적인 상태들을 진단, 치료하는데 영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적하는 증거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많은 상담자들이 영성의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Jessor & Jessor, 1977; Oetting & Beauvais, 1987; Gartner, Larson, Allen, 1991; Wright, Frost, Wisecarver, 1993; Bogenschneider, 1996; Benson, 1998; Stanard, Sandhu & Painter, 2000; 최해립, 2001; 장순옥, 2001; 박지아, 유성경, 2003; 유성경 외, 2004; 이해리, 2004). 그러나 탄력성 척도에서 영성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것은 Connor와 Davison(2003)의 CD-RISC가 유일하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청소년 탄력성척도 개발 연구에서 영성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 상담과 교육 및 탄력성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제 6 요인 및 14요인으로 확인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상호작용 요인은,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및 사회경제적 위기와 부

정적인 환경의 노출이 심화되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윤정(2004) 등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각종 센터와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기관들은 특히 내적·외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돌봄과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바람직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 청소년 탄력성 척도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 개인의 내적 특성이나 가정과 또래, 학교 차원의 보호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으로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상호작용을 의미있는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측정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본 연구는 최초의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로서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 및 청소년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객관적 측정이 어려웠던 점을 생각할 때 본 척도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탄력성 척도는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과 어느 관계들, 어떤 자원들이 활용가능한지 혹은 양육되어야 할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입이 수월하다. 또한 탄력성 요인들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해 양육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필요시 탄력성 증진 집단들을 구성, 그 개입 효과를 측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Marshall & Benard, 2003;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itiative, 2002; Luthar & Ciccechetti, 2000; Benard, 1991). 요컨대 탄력성 척도는 교육과 상담 및 임상, 사회복지 현장과, 나아가 목회 현장 등에서 청소년들의 이해와 진단, 선별, 치료적 개입 및 연구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 결과와 관련, 논의점의 하나로 탄력성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제 2 요인(학교에서의 돌봄과 기대), 제 3 요인(낙

관주의), 제 4 요인(가정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을 포함한 절반가량의 요인들에서 .445 ~ .315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대 수준은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상호작용과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및 의미추구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낙관주의, 목표와 희망, 공감과 수용, 의미추구 등도 서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종교적 영성 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들과도 뚜렷한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탄력성에 있어서 종교적 영성이 다른 요인들의 높고 낮은 수준과는 무관히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함을 짐작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와 그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심층적인 탐색과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청소년 탄력성 척도가 타당하고 신뢰롭기 위하여,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요인구조 파악을 통해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척도 전체 및 요인별 신뢰도를 확인하였지만, 타당도와 신뢰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국 표집을 대상으로 한 교차타당화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타 검사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 청소년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척도의 변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에 있어서는 내적 일관성은 확인되었으나 시간경과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토도 요구된다.

둘째, 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갖는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개념적으로 ‘역경’ 혹은 위험수준까지 포괄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는 최근 해외의 많은 탄력성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한점으로 앞으로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선 후속연구에서는 위험수준과 관련한 탄력성 요인과 긍정적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위험수준과 긍정적 결과 간에 탄력성 요인의 중재역할이 드러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토대로 하고 있는 탄력성 이론은 아직도 계속하여 보완,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따라서 그 개념적, 방법론적 및 문화권에 따른 다양성과 변화 등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이해·진단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민감하고 유용한 척도가 되도록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2004).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 김아영(1996). 자기 효능감의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종선(2002). 지체부자유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재활심리연구, 9(1), pp.169-183.
- 김택호 · 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pp.465-490.
- 김택호 · 서미 · 조한익(2005). 청소년의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집단에 따른 이점발견의 차이. 상담학연구, 6(2), pp.515-530.
- 문은식(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박도순(2000). 문항 작성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도순(2004). 질문지 작성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지아 · 유성경(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pp.765-778.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현숙(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상담연구, 11, pp.71-84.
- 박현진(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 홍세희 · 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 18(1), 393-408.
- 유성경 ·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 pp.189-206.
- 오경자 · 김은이 · 도레미 · 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pp.53-71.
- 이해리(2004).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표상에의 접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4), pp.1293-1310.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pp.143-161.
-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pp.113-127.
- 최윤정(2004).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리질리언스. *한국청소년연구*, 15(2), pp.385-414.
- 최해림(2001).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pp.1-13.
- 탁진국(1996).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국 심리학회(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홍세희(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3차 workshop.
- Baumeister, R. F., and Vohs, K. D.(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nard, B.(1991). Fostering resilience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community. <http://www.nwrrac.org/pub/library/f/foster.pdf>.

- Block, J., and Kremen, A. M.(199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pp.349-361.
- Bonanno, G. A.(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ev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9, pp.20-28.
- Cicchetti, D. and Garmezy, N.(1993).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pp.497-502.
- Compas, B. E., Hinden, B. R.,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pp.265-293.
- Connor, K. M. and Davison, J. R.(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 pp.76-82.
- Constantine, N. and Benard, B.(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2), pp.122.
- Criss, M. M., Pettie G. S., Bates, J. E., Dodge, K. A., Lapp, A. L.(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ed behavior: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3(4), pp.1220-1237.
- Dumont, M. and Provost, M. A.(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s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pp.343-363.

- Fassig, E. I.(2003). *Attachment and Resilience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in College Freshmen*. doctoral dissertation.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 Fine, S. B.(1991).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Who rises above adversity? 1990 Eleanor Clarke Slagle Lectur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6), 493-503.
- Frankl, V. E.(1976).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Original work published, (1959).
- Fracis, L. .J., Katz, y. J., Yablon, Y., Robbins, M.(2004). Religiosity, personality, and happiness: A study among Israeli male undergraduat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4), pp.315-333.
- Garne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pp.127-136.
- Garnezy, N.(1996).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Haggerty, P. J., Lonnie, P. S., Garnezy, N., & Rutter, M.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rocess, Mechanism,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ntz, M. D. and Johnson, I. L.(Eds.)(1999)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 New York: Plenum.
- Hackney, C. H. and Sanders, G. S.(200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recent studi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2(1), pp.43-56.
- Hawkins, J., Catalano, R. F., Miller, J. Y.(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pp.64-105.

- Heller, S. S., Larrieu, J. A., D'Impero, R., Boris, N. W.(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 Hernande,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itiative(2002). Competent Kids: A Guide for Fostering Resilience. www.imhi.org.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Turbin, M. S.(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1, pp.923-933.
- Kaplan, H. B.(1999).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and models. In M. D. Glantz, & J. L.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pp.17-83.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Kim-Cohen J., Moffitt T. E., Caspi, A., Taylor, A.(2004).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in young children's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socioeconomic deprivation. *Child Development*. 75(3), pp.651-668.
- Kinard, E. M.(1998). Methodological issues in assessing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2(7), pp.669-680.
- King, P. E. and Furrow, J. L.(2004). Religion as a resource for positive development: Religion, Social capital, and moral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pp. 703-713.
- Klohnen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0(5), pp.1067-1079.
- Lin, H. R. and Bauer-Wu, S. M.(2003). Psycho-spiritual well-being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4(1), pp.69-80.
- Luthar, S. S., Cicchetti, D.,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pp.543-562.
- Luthar, S. S. and Cicchetti, D.(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social politic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 Masten, A. S., Best, K. M., Garm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pp.425-444.
- Masten, A. S. and Coatsworth, J. D.(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pp. 205-220.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Ramirez, M.(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1(1), pp.143-169.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pp.227-238.
- Masten, A. S. and Reed, M. G. J.(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74-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bbin, L.(2001). Challenges to the definition of resilience. *10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Gloin, J. M. and Widom, C. S.(2001). Resilience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3(4), pp.1021-1038.
- O'Donnell, D. A., Schwab-Stone M. E., Mueeed, A. A.(2002). Multidimensional resilience in urban children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Child Development*. 73(4), pp.1265-1282.
- Oshio, A., Kaneko, H., Naganime, S., Nakaya, M.(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93, pp.1217-1222.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Sawyer, S. M.(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pp.1-11.
- Osborn, A. F.(1990) Resili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igh achieving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2, pp.23-47.
- Perez, J. E.(2002). *Spirituality and Depression Symptoms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Evaluation of Potential*.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Poston, D. J. and Turnbull, A. P.(2004). Role of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in family quality of life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9(2), pp.95-108.
- Revich, K. Schatte, A.(2002).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 Books.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pp.598-611.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3), pp.316-331.
- Rutter, M.(1993). Resilience: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 pp.626-631.
- Scheier, M. F. and Carver, C. S.(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pp.219-247.
- Seligman, M.(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and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On happiness, excellence,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s*, 55(1), pp.7-8.
- Sheldon, K. M. and King, L.(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3), pp.216-217.
- Sherman, J. and Fischer, J. M.(2002). Spirituality and addiction recovery for rehabilitation counseling.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33(4), pp.27-32.
- Shiner, R. L., Masten, A. S., Tellegen, A.(200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hood: childhood antecedents and concurrent ada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pp. 1165-1177.
- Spencer, M. B., Cole, S. P., DuPree, D., Glymph, A., Pierre, P.(1993). Self-efficacy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early adolescents: Exploring issues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pp.719-739.

- Wang, M. and Gordon, E.(Eds.). *Risk and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Hillsdale, NJ: Erlbaum.
- Wallace, K. A., Toni, L., Bisconti, Bergeman, C. S.(2001). The mediational effect of hardiness on social support and optimal outcomes in later lif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pp.267-279.
- Werner, E. E.(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pp.503-515.
- Werner, E. E. and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Zimmerman, M.(1983).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life events: A review of issues and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 pp.339-370.

ABSTRACT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n Adolescents

Lee, Harriot* · Jo, Han-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A theoretical model was constructed consisting of 2 sub-scales each for personal traits and protective factors; each sub-scale having 4 levels; each level having 2 resilience factors. Thus making 16 resilience factors. One hundred and four items were selected and modified from the 114 items sampled from the existing Resilience Scales and literatures. This was done through psychologists and statistician's judgement along with interviews and cognitive tests for 39 adolescents for content validity. Ninety-seven items remained valid after item analyses in the two pilot studies done on 570 adolescents.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67 items loaded high on 16 resilience factors confirming the scale's construct validity. These 16 resilience factors were self efficacy; problem solving; emotional regulation and impulse control; empathy and acceptance; optimism; goal and hope; meaningfulness; spirituality (above are the personal traits); care and anticipation at school; meaningful interaction at school; familial caring and anticipation; meaningful familial interaction; community care and anticipation; meaningful interaction at community; pro-social peers; and meaningful peer interaction (above are

* Korea Nazarene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

the protective factors). The item-scale internal consistency was $\alpha=0.940$. Sixteen factors' internal consistency ranged from .967 to .620, confirming the scale's reliability. The procedure to choose the most highly loaded items led to final 48 items in the completed scale.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including spirituality as the most prominent factor and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are given.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mentioned.

Key Words : adolescent resilience, personal traits, protective factors, positive adaptation, spirituality

투고일 : 10월 28일, 심사일 : 12월 1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